

## 새내기 새로배움터 성공적으로 마무리



▲퀴즈 게임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레크리에이션 시간. 모두들 정답을 고민하던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답을 외쳤다.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열렸다.

첫날 행사는 ▲개회식 ▲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하랑&한성이 소개 ▲학군단(ROTO) 소개 ▲동아리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저녁식사 후 진행된 동아리 공연은 ▲탈패 ▲들불 ▲4호선마이크 ▲N.O.D ▲왕산악이 준비한 무대로 채워졌다.

고요찬(역사 4) 동아리연합회장은 "오직 신입생만을 위해 선배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무대인 만큼 끝까지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며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공연을 즐겁게 관람한 김형목(IT 1) 학생은 "마지막 순서였던 왕산악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선배님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둘째 날은 ▲단과대 행사 및 학과별 행사

▲단과대학 레크리에이션 행사 ▲중앙공계기구 안내 ▲총장님 격려사 ▲총학생회 행사 ▲장기자랑 및 응원전으로 행사가 꾸며졌다.

단과대마다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의 현장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레크리에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윤아(상상력 1) 학생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터가 진행되는 동안 재학생들은 신입생들에게 선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조장과 부조장이 각 조의 신입생들을 인솔했으며, 규율대가 신입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졌다.

새터를 총괄한 정호재(무역 4) 총학생회장은 "유독 많은 인원이 이번 새터에 참여했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안전 확보라고 생각해 규율대와 함께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임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작년 새터에 참여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너무 긴 이동 시간과 이동거리였다고 한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경로를 짜다"고 덧붙였다.

규율대로 참여한 이민용(인문 2) 학생은 "작년에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배들을 보며 나도 다음 해에는 저런 선배의 모습으로 다시 새터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바람대로 이번에는 규율대 자격으로 새터에 오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후배들이 규율대의 통제에 잘 따라줘서 고맙다. 참가자들이 새터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내주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후기를 전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201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황리에 마쳐

지난 1월 24·25일, 수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이 개최됐다. 1월 24일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및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의 오티가, 25일에는 디자인대학 및 IT공과대학의 오티가 진행됐으며, 2월 22일에는 상상력 인재학부를 비롯한 정시 신입생 오티가 실시됐다.

행사는 크게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1부 행사는 ▲트랙제도 안내 ▲장학 안내 ▲해외인턴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소개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학사 일정 안내 ▲학술정보관 소개 ▲동아리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안내 ▲홍보대사의 학교생활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2부 행사는 조를 나눠 이동하며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재학생의 안내에 따라 ▲트랙버스 탐방 ▲기타 행사에 참여했다. 각 트랙은 상상관 지하 2층에 부스를 설치해 신입생들에게 '트랙 소개', '정규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내 행정부서들은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학사 안내, 국제교류, 장학, 학습 지원 등의 부스를 마련했다. 부스 탐방 이후 신입생들은 학술정보관과 상상벨리지 시설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도한별(사회과학 1) 학생은 "교수님께 직접 설명을 들으니 트랙에 더 흥미가 생기고 이해하기 쉬웠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준(IT 1) 학생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교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트랙을 선택하기 전, 나에게 맞는 트랙을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2월 23일에는 신입생 학부모 오티가 진행됐다. 행사는 ▲교내 프로그램 소개 ▲전공교수와의 만남 ▲단과대학·학부별 트랙버스 탐방 등으로 꾸며졌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동정란

고영란(CT디자인학부) 교수

고 교수는 <바우하우스 이후 100년> 세미나에서 '바우하우스 담론의 다층성: 공예, 산업디자인, 직조공방,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발표했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기관선정 심사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요원 채용심사위원 ▲서울교통공사 이러닝 제안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민규(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한 교수는 서울인터넷 국제표준기구 oneM2M 총회에서 TDE(Test & Developer's Ecosystem) 워크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에브리타임 학교 소식**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 고난의 서면신청... 학생들은 왜 밤을 새웠나

지난 2월 17일, 창의관 5층에서 ICT디자인학부(이하 ICT) 학생들이 강의 서면신청을 위해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사태가 발생했다. ICT 과사무실(이하 과사무실)에서는 1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면신청 번호표를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배부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서면신청의 특성 때문에 경쟁이 과열돼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날부터 학교에 나와 밤을 새웠다. 가장 먼저 줄을 선 학생은 17일 오전 11시경부터 대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서면신청이 과열된 것은 야간 학생들과 복수·부전공 학생들이 오로지 서면으로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일러스트레이션 트랙을 제외한 ICT 소속 트랙은 야간 대학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트랙을 2트랙으로 선택한 야간 학생들은 ICT 수업을 들으려면 주간 학생들이 수강신청하고 남은 자리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정현(인문 2) 학생은 "트랙을 선택할 당시, 주간 대학만 운영하는 ICT 소속 트랙을 야간 학생이 2트랙으로 선택해도 수강신청이 가능한지 학사지원팀에 문의했다. 야간 학생을

위한 TO가 마련될 것이라는 답변만 믿고 트랙을 선택했는데, 막상 수강신청 당일이 되니 전산 상에서 강의 선택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호(디자인대학 교학팀) 부장은 "야간 학생들과 복수·부전공 학생들도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당사자들과 자과 학생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학사지원팀에서 야간 학생들을 위한 TO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실기시험을 거쳐 입학한 자과 학생들의 반발이 우려돼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다. 복수·부전공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강의 분반이 적게 개설된 것도 서면신청 경쟁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백민재(융복합디자인학부) 조교는 "수강신청 전에 장바구니 제도를 활용해 강의 수요조사를 한 후 분반을 개설한다. 그런데 예측한 수요보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많아 분반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디자인대학에 소속돼 있지 않은 2트랙 학생들과 복수·부전공 학생들에게 서면신청 날짜 및

방법이 공지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과사무실에서 발송한 공지 문자 메시지를 해당 학생들에게는 발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조교는 "공지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디자인대학 소속이 아닌 학생들의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과사무실에 없었다. 사태 발생 후인 2월 20일에 권한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면신청 정보를 디자인대학 소속 학생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구현(에니제품 3) ICT 학생회장은 이와 관련해 "ICT 단체 채팅방과 학과 채팅방에 공지를 올린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관련 강의를 듣는 타 단과대 학생들을 학생회가 모두 파악해 먼저 초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타 단과대 학생이라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초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일반적으로 2차 수강신청 이후 서면신청을 진행하는데, 이번 ICT 서면신청은 1차 수강신청과 같은 날 시행돼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 조교는 "2차 수강신청 이후 서면신청을 받으면 분반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기 초반에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므로 서면신청 날짜를 앞당겼다"며 "1차 수강신청이 종료된 후, 정정에 실패한 학생들이 찾아오면 그때 번호표를 배부하려고 했다. 학생들이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기다릴 거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다"고 전했다.

디자인대학은 지난 2월 25일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디자인대학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10명 이상 추가 신청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분반 허용 ▲과목별 일정 TO를 야간 학생에게 배정 ▲서면신청 시기는 2차 수강신청 기간 이후로 조정해 서면신청자 인원 최소화 ▲학기 중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많은 과목은 계절학기에 개설 등이다.

이날 김홍배 ICT디자인학부장은 "본질적 원인은 분반이 적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바구니 이용률을 높여야 정확한 강의 수요 조사가 가능하고, 그에 맞춰 분반을 개설할 수 있다. 앞으로 장바구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서면신청 당일 아침, 학생들이 번호표를 배부받기 위해 줄을 서었다.

말했다.

또한, 백 조교는 "서면신청은 2차 수강신청 기간까지 받을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면신청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건은 또 있었다. 학생들이 서면신청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자, 상황파악에 나선 학사지원팀 교직원들이 서면신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그럼 서면신청을 없앨까요?"라고 반문한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과지은(서양화4) 학생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밤을 새워가며 서면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강의 분반을 늘리는 등 학교가

본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서면신청 뿐인 학생들도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하기는 커녕 서면신청을 없애겠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말문을 틀어막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자(학사지원팀) 팀장은 "학사지원팀에서는 서면신청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서면신청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다. 학생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상상빌리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학생장학팀 설명 들어보니...

지난 2월,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 페이지에 상상빌리지 입사자 선발 관련 제보가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입사자 성비 불균형과 계약 기간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댓글에서 우리학교는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 비율보다 많은데 상상빌리지 여학생 입사 인원이 남학생보다 많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상상빌리지는 지상 7층 구조라 남학생과 여학생 중 한 쪽에 1개층을 더 배정할 수밖에 없다.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상상빌리지 수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4개층을 여학생에게, 3개층을 남학생에게 배정한

것"이라며 전말을 밝혔다.

실제로 '상상빌리지 수요 설문조사'에서 남학생은 178명(36.6%)이, 여학생은 309명(63.4%)이 입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남학생보다 여학생 수요가 많은 현상은 1차 추가 입사 지원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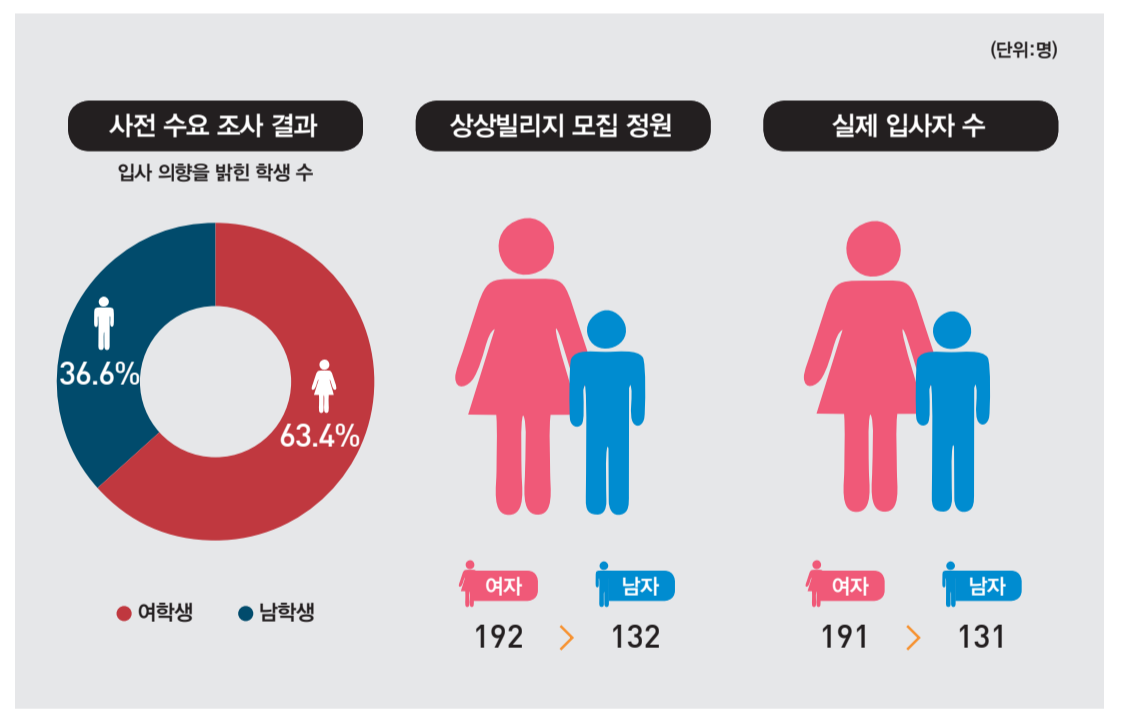
'거주지보다 계약기간을 우선시 하는 선발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4~6개월 단기 임주를 신청한 충청·강원 지역 학생이 12개월 임사를 선택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학생보다 순위가 밀려 입사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게시글에서는 '기숙사는 지방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인데 계약 기간에 따라 우선 선발하는 것은 기숙사 운영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팀장은 "상상빌리지는 우촌학사, 삼선학사와 달리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가 아니다. 우리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유한회사가 상상빌리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상상빌리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숙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상상빌리지 건축 시 유한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만약 우촌학사와 같은 기존 기숙사처럼 학기 단위로만 입사자를 모집한다면 방학 중에는 수입 확보가 불가능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불거진 오해를 설명했다.

상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한성 #타임라인

####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달 2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하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은 학부 오전 11시, 대학원 오후 2시로 나누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종훈 이사장, 이상한 총장 등 교내 인사와 학위 취득자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864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109명, 박사 35명, 석사 193명 등 총 1,201명이 학위 증서를 받았다.

상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24명 ▲학과 추천 공로대상자 57명 ▲특별 공로상 21명 ▲동문회대상 2명 ▲기업은행대상 1명 ▲우리의행상 1명 등 총 106명이 수상했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 ▲학사학위과정 공로상 1명 등 총 2명,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1명 ▲우수논문상 11명 ▲성적우수상 19명 ▲공로상 26명 ▲특별공로상 3명 ▲대학원 총동문회대상 2명 등 총 62명이 상을 받았다.

한편,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임예진(의과 4) 졸업생은 "4년 동안 교내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며 얻은 것이 많다. 출가분한 마음으로 학교를 떠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한성엠버서더 제29기' 모집

한국어교육과정에서 오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성엠버서더 제29기'를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3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며 1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본교 재학생이다. 단, 1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선발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심과 봉사정신 ▲관련 봉사 경험 ▲시간 활용의 유연성 등이다. 선발된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비교과 포인트를 최대 100pt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김승천 국제교류원장은 한성엠버서더 운영 목적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국적 인간관계를 맺고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문화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활동인 만큼, 선발된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지원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Level-Up 창업아카데미' 개최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 25일부터 26일까지 창업지원팀이 '2019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Level-Up 창업아카데미(이하 Level-Up 창업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행사는 올해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우리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우리학교 학생과 연합팀을 구성한 타 대학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2019 정부지원사업 특강 ▲창업아이템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이선호(벤처박스) 이사과 구은화(울렛프리젠테이션) 대표 등이 초빙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도희(IT 2) 학생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의 분위기가 열거웠다"며 "강사들이 창업아이템과 사업계획서를 일대일로 검토해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심효정(창업지원팀) 팀원은 "창업지원팀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교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주저 말고 관련 교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꽃다운 청년 집어삼킨 ‘위험의 외주화’ 그 해결책은?

지난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그의 나이 향년 24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인 낙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연료 공급용 벨트에 몸이 빨려 들어가 발생한 사고였다. 매뉴얼상으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으나, 하청업체에서 김 씨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한 탓에 사고 당시 그를 도와주거나 벨트 가동을 멈춰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19세 김모 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전동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 사고 역시 현장 작업 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김모 군 혼자 현장에 배치돼 참변을 막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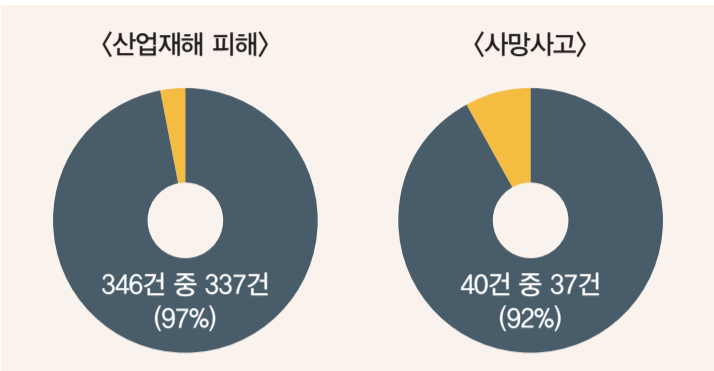
이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마련돼 있지만, 원청업체가 위험을 ‘외주화’해서 비슷한 사고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때 외주화는 ‘원청업체가 업무 효율 극대화를 목적으로 제3의 업체에 위탁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승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청업체가 ‘고용주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산안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위험한 업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346건 중 337건(97%), 사망사고 40건 중 37건(92%)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6년간 5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지만, 그중 원청업체가 책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6명이 모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입었으나, 법률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되므로 원청업체인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인증’, 5년간 산업재해보험료 22억 4천 6백만 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원청업체가 일차적으로 하청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면, 하청업체 내부에서는 또 다시 위험 전가가 이뤄진다. 위험한 작업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낙탄 제거 작업도 원래 하청



▲최근 5년간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피해 건수

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였으나, 비정규직인 그에게 배정됐다. 원청업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업무일수록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는 식이다.

이 외중에 정규직 일자리가 점차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 사고 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주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근거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꺼리고,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작업 환경이 위험하더라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고위험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태가 비정규직이거나, 다소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일단 취업해서 경력을 쌓아야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층 비정규직 증가를 막기 위해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만이라도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면 위험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떠맡는 사태를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면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주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작업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산안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산안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 발의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원·하청업체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청업체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극히 일부 업종에만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이들의 노력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건 차 여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체 병사의 2%에 한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했다.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 수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8월 기준 총 36개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일전에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 필요한 업무만이라도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면 위험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떠맡는 사태를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면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주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작업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산안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산안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 발의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원·하청업체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청업체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여론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기강 해이 및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공개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부대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박사이트 접속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191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탓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통제가 어려워져 기강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맥락으로 이용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휴대전화 통제 앱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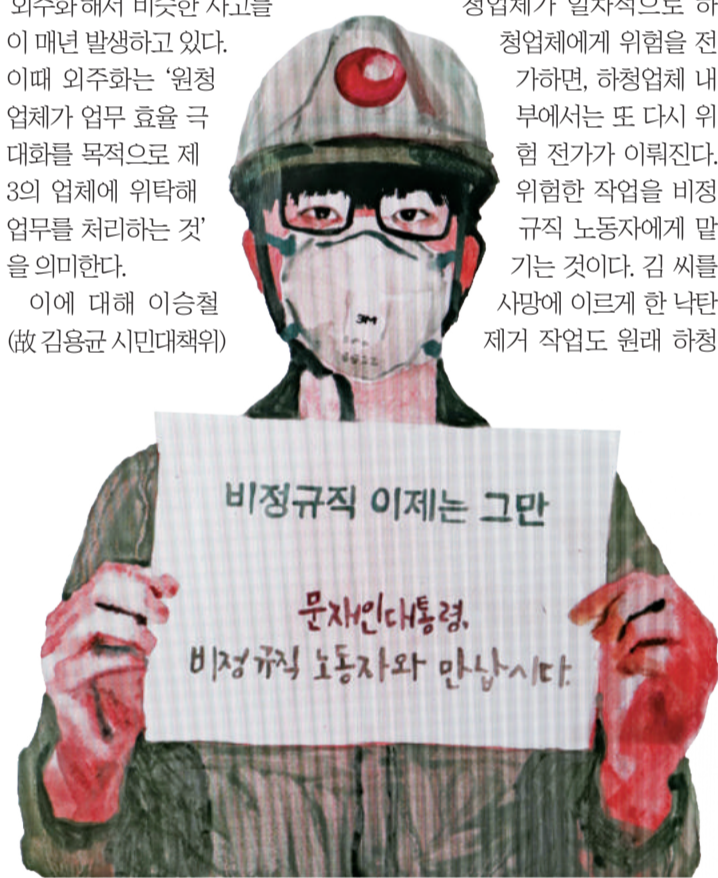
성급하게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월에 군 입대가 확정된 대학생 B씨(21)는 “휴대전화화가 있으니 외부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인권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은 “우리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결정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는 자유권을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팀장은 “시범부대를 방문한 결과, 부정 사용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대부분 사용 시간 위반이었다. 사회에서 우려하는 기밀 유출 등의 보안 사고는 없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협약’에 따라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관리할 전망이다. 휴대전화 반입 시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 앱을 설치하도록 해 사용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 군대 내 촬영과 녹음은 엄격히 금지하며, 휴대전화 보관은 부대의 실정에 맞게 개인 혹은 통합 보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우려를 딛고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강사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작년 12월, 정부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강사법’을 공포했다. 이는 올해 8월 1일을 기점으로 신규 임용되는 시간강사 사부터 적용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임용 비리를 고발하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련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부여, 최소 1년 이상 임용 계약,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 전부터 대학의 편법 사용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강사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시간강사들은 보호는 커녕 일자리 축소 및 실적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실제 지난 1월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대학 약 20곳에서 100~400여 명의 시간강사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전임·비전임 교원들도 마찬가지다. 시간강사를 해고한 후, 전임교원이나 겸임·초빙 교원 등 비전임 교원에게 추가 강의를 강제로 맡겨 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시간강사에게 방학 기간 임금과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지급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가 시행되면

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간강사 채용 축소로 개설과목이 줄어들어 강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에서 개설과목 수를 줄이고 시간강사 대신 겸임 교원을 우선 채용하려는 정황이 ‘강사법 대비 문간’ 유출을 통해 포착됐다. 실제로 고려대 총학생회가 2019학년도 개설 과목을 확인한 결과, 전년도 대비 200여 개의 교과목이 폐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이번 학기 수강신청은 끝났고, 200개가 넘는 과목이 폐강

### 개정된 강사법

구분	현행	⇒	개정
법적 지위	교원지위 미부여		교원지위 부여
임용 기간	규정 없음		최소 1년 이상 임용
책임용	규정 없음		3년까지 책임용 절차 보장
교수 시간 규정	규정 없음		주당 6시간 이하
방학 중 임금	없음		방학 중 임금 지급

됐기에 추후 과목 조정을 고려하더라도 개설과목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학교는 시간강사 인원 및 개설과목 수와 관련해 학생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은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한 대학의 불합리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대책 없는 태도가 문제다.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강사는 물론,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사법은 7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성인용품 입문,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성인용품점을 떠올려보라. 저-어 골목길 구석에 박혀 불투명 시트로 온 벽을 가린 어두컴컴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가? 이런 외관은 성인용품점에 남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최근 성인용품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기에 딱하니 자리잡고 있는가 하면, 통유리 너머로 가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화장품 가게를 연상시킬 정도다. 그래서일까. 성인용품점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당당해 보인다. 이때가 기회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 당당하게 성인용품점에 입성할 기회. 어떤 성인용품이 있는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구경해보자. 어서어서!

### 색다르게

"남자친구가 섹스할 때 콘돔 쓰기 싫다고 해서 걱정이예요." 유튜브 연애 고민 상담 콘텐츠의 단골 소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한다. "그 놀이랑 헤어져!" 과연 그게 최선일까? 이 글을 읽어 보면 좀 더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성인용품점에서는 '색다르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콘돔을 판매하고 있다. 연인과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정지연' 콘돔을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콘돔에 첨가된 국소 마취제인 벤조카인이 사정을 지연시켜 오랜 시간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콘돔의 착용감이 너무 싫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얇은 두께의 콘돔을 추천한다. 얇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초박형 콘돔의 두께는 약 0.02~0.05mm/0.06mm인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 이렇게

얇은 콘돔을 사용하면 콘돔을 끼지 않은 것 같은 '노콘'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성기에 끼우는 콘돔 외에 손가락에 끼우는 콘돔도 있다. 항문이나 여성의 성기를 좀 더 위생적으로 애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콘돔이다.

### 재미있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신혼부부에게 선물한 부끄러운 주사위. 방송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위의 정체를 궁금해 했다. 그가 선물한 주사위는 일반 주사위가 아닌 섹스 체위가 그려진 '성인용 주사위'였다. 시중에는 그보다 수위가 낮은 커플용 주사위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사위,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커플용 주사위'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두 개의 주사위에는 각각 신체부위와 동사가 적혀있다. 만약 굴린

주사위에 '귀와 마사지하기'가 나왔다면 발칙을 수행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귀를 마사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다 보면 스킨십에 어려움을 겪는 커플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성인용 젠가'도 있다. 성인용 젠가는 '썸'용과 '사귀는 사이'용이 있어 인기가 많다. '썸'용 젠가는 썸 타는 사이에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으로, 조각마다 '30초간 아이컨택', '볼 뽐뽐하기' 등의 비교적 쉬운 미션이 적혀있다. '사귀는 사이'용은 '썸'용보다 종류가 많은데 커플 1단계, 커플 2단계, 29금 등 버전이 올라갈수록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진다. 색다른 재미를 찾고 있는 연인이라면 한번쯤 해볼 만하다.

이외에 카드를 뽑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성적 취향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카드도 있다.

성인용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김소희(몬스터창고) 매니저는 "서로의 성적 취향을 대화로 공유하는 일을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아이템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성적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어 커플 손님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 간편하게

싱글을 위한 성인용품도 있다. 바로 자위기구다. 간편함과 즐거움을 둘 다 누릴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주머니에도 쏙 들어갈 만한 크기의 '미니 바이브레이터(진동에 의해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성 도구로 질 삽입이 가능하다)'는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다. 기존 바이브레이터 못지않은 강력한 진동을 자랑하는 제품도 많다. 미니 바이브레이터는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고 다니다가 자위나 애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간편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남들 시선이 신경쓰인다면 립스틱 모양의 '우머니저(공기압을 통해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흡입해 자극하는 성인용품)'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립스틱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하고, 립스틱처럼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방식이라 화장품인척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바이브레이터, 우머니저와 달리, 남성을 위한 자위기구도 있다. '오나홀'이라는 기구는 남성이 성기를 삽입해 자위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한손에 잡힐 정도로 작은 크기의 달걀 모양 오나홀 제품도 있다.

김 매니저는 "달걀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편하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크기가 작아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까 의심하는 손님도 있지만 신축성이 좋아서 쾌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 건강하게

성인용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성인용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구중희(레드컨테이너) 실장은 "성인용품 중에는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기구들이 많다. 따라서 사용 전에 신체와 제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사용하는 제품들은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씻고, 제품을 잘 말려 보관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진동기의 경우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며 "제품의 재질 등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즐거운 성 생활을 위해서는 신체는 물론, 사고 방식도 건강해야 한다. 평소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하고,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탐색해야 한다. 우리학교에서 '사랑과 가족', '성과 사회'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영(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조빙교수는 "성인용품의 일부 상품들은 성 상품화를 부추기거나 특정 성, 연령 혹은 인종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로망틱화, 자연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들이 착취와 차별, 폭력에 가담하여 생산된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가려낼 줄 알고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오나홀. 귀여운 캐릭터가 눈에 띄지만 막상 내부 구도를 살펴보면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젤은 모두 러브젤이 아닌 마사지젤이다. 러브젤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블루투스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터. 시기술을 적용한 성인용품도 개발 중이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향초.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향초에는 '페르몬' 성분이 함유돼 있어 상대방의 호감을 불러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다.



▲변화기에 위치한 성인용품점 내부. 인테리어가 화장품 가게를 연상케 한다.



## 마르셀 뒤샹, 긴 시간을 넘어 대중과 마주하다

"아니, 변기가 무슨 예술 작품이야?" 마르셀 뒤샹의 <샘>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변기에 사인 하나 해놓고 뒤집어 놓은 것이 작품이라니... 하지만 '고작' 변기를 예술 작품이라 칭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마르셀 뒤샹' 전을 찾았다.

뒤샹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을 맞이해



▲마르셀 뒤샹의 대표작 <샘>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이 공동주최한 이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셀 뒤샹 회고전이다. 본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총 4부에 걸쳐 뒤샹의 작품을 연대기 순으로 보여준다. 먼저 1부는 '화가의 삶'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청소년·청년기의 뒤샹이 어떻게 화가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뒤샹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미술 사조들이 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중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NO.2>는 여러 미술 사조 중 뒤샹이 입체주의 기법을 어떻게 자신만의 색깔로 변주했는지 보여준다. 뒤샹은 이 그림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2부 제목은 '예술적이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이다. 2부에서는 화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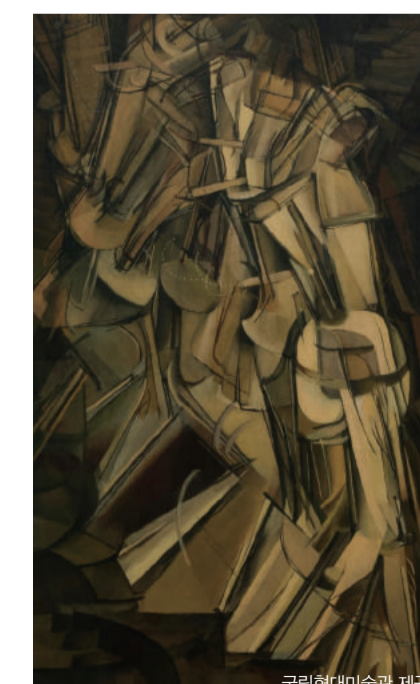
길을 벗어나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뒤샹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그는 붓을 내려놓고 회화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레드메이드(작가가 작품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건에 다른 이름을 붙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작품으로 유명한 <샘>이 탄생하게 된다. <샘>은 단순한 변기가 아니라, 기존 예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뒤샹의 고뇌가 담긴 작품인 것이다.

3부에서는 1920, 30년대 뒤샹의 활동을 보여준다. 작품 형식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까지 변화시키려 했던 뒤샹은 이 시기에 '에로즈 셀라비'라는 여성 자아를 만들었다. 그는 여장을 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향수에 에로즈 셀라비의 얼굴을 로고로 넣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작품에 본명 대신 '에로즈 셀라비'라고 사인함으로써 에로즈 셀라비가

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주희(가톨릭관동대 2) 관람객은 "자신을 세상의 틀에 맞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려 한 뒤샹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4부 '우리 욕망의 여인'에서는 뒤샹의 마지막 작품 <에팡 도네>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뒤샹은 다소 에로틱한 이 작품에 대해 아무런 해석을 달지 않았는데, 그가 이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했는지 추측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면 전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50년, 100년 뒤의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던 마르셀 뒤샹. 긴 시간을 넘어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이번 전시를 통해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NO.2>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 한성대IN 개발자 김희성

지난 1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안녕하세요! 한성대IN 개발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우리학교 정보시스템학과 출신인 김희성(31) 씨는 삼성SDS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가 언급한 자신의 스펙은 4수생, 평범한 학점, 2년간의 취업 공백 등이었다. 요즘 같은 ‘스펙전성시대’에 대기업에 입사한 스펙이러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의 이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금세 이슈가 됐다. 과연 그는 어떻게 대기업 입사에 성공한 것일까? 그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그를 만났다.

### 방향 또 방향했던 시절

“우리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와 전공을 몇 차례 바꿨어요.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흥미가 있던 방송영상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재미만 있고 결정적으로 잘하진 못했어요. 고민 끝에 자퇴하고 재수를 해서 타 학교 생명과학과에 입학했어요. 학창시절 생명과학 과목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입학 전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학문에 애착을 갖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문득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대학 정보시스템공학과

(현 IT응용시스템학과)에 입학한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우리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해서 방향했다. 3학년 때까지 전공 공부에 거의 손대지 않았고, 전부터 흥미를 갖고 있었던 영상 편집 활동에만 매진했다. 그는 N.O.D(우리학교 댄스동아리)와 U.D.C(전국대학교 댄스동아리 연합)에서 영상 편집을 도맡았다.

김 씨는 “워낙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수업을 빼먹거나 강의 도중 도망간 적도 종종 있어요”라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그래도 과제는 꼭 제출했어요”라고 덧붙였다.

### 천천히, 오래 당긴 활시위

오랜 시간 방향했던 그에게도 전환점은 찾아왔다. 4학년 때 졸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성대IN’ 앱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졸업프로젝트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앱 개발은 배워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께서 ‘웹과 연동되는 앱을 개발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민하던 찰나에 학교 동기들이 학점을 계산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자동으로 학점이 계산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팀원 두 명을 모집해 셋이서 ‘한성대IN’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 웹과 앱에 대한 아무런 기초지식 없이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어 터라 시행착오도 겪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웹과 앱 지식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신감을 연료 삼아 ‘한성대IN’의 전신을 개발했어요. JAVA로 작성된 데스크톱 전용 프로그램이었죠.”

김 씨는 이 프로그램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그러자 ‘모바일 앱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3개월 후 모바일 앱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초기 ‘한성대IN’에는 전공 평점과 학점 계산 기능만 탑재돼 있었고, 디자인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앱을 사용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거듭한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 결과 ‘한성대IN’의 다운로드 수는 10,000건이 넘었다.

김 씨는 2015년 8월 졸업 후 2년간 ‘한성대IN’ 개발 및 업데이트에 더욱 몰두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꾸준히 지적 받아온 ‘한성대IN’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디자이너 모집 공고를 게재하며, 비슷한 시기에 앱 개발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과 후배를 개발팀에 영입했다. 2명의 개발자에 새로 모집한 3명의 디자이너까지 총 5명이 모여 ‘한성대IN’을 유지·보수할 ‘TEAM 5D’를 결성했다. ‘한성대IN’은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아 환골탈태했다. 이때 꾸려진 TEAM 5D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화팀과 앱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제가 삼성SDS에 입사하게 된 것도 ‘한성대IN’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 몸 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한성대IN’을 개발한 경험은 제 대학 시절을 통틀어 가장 큰 자산이에요.”

### 마이웨이 그리고 제2의 방향

김 씨는 현재 재직 중인 삼성SDS 외에도 다수의 대기업에 합격했다. 그에게 취업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특정 기업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본인을 억지스럽게 끼워 넣다 보면 부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성대IN’을 개발한 경험 등 제가 가진 강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어요”라고 답했다.

현재 김 씨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지금도 제게 맞는 전공을 찾아 헤매던 20대 초반처럼 제 전문 분야를 선택하지 못한 상태예요.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에서도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래도 계속 경험을 쌓다보면 언젠가 제게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선택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사람들이 ‘김희성’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요.”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2014년 당시 출시된 ‘한성대IN’

사진 제공: 김희성



사진 제공: 김희성

# 꾸깃꾸깃 폐지를 예술 작품으로 Turn Up!

##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최근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약 14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다. 이들은 하루 종일 폐지를 10kg가량 수집하지만, 이를 고물상에 팔면 1,000원도 채 벌지 못한다. 그들의 노동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지만 러블리페이퍼는 ‘업사이클링(버려진 물건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예술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1kg당 1,000원 가격에 폐지를 사들여 노인들을 돕는다. 이들은 사들인 폐지로 캔버스를 만들고, 이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협업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보낸다. 작가들이 작품을 완성하면 이를 러블리페이퍼가 한 점당 30,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러블리페이퍼 기우진(38) 대표는 ‘이웃 사랑’이라는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러블리페이퍼의 모태인 봉사단체 ‘굿페이퍼’를 2013년 창설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고 그분들을 돕기로 다짐했고, 이를 실천에 옮겨 만든 것이 바로 굿페이퍼입니다.”

당시 굿페이퍼는 노인들이 주워온 폐지를

사들여 재활용업체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수익의 일부로 먹거리나 보온용품 등을 구입해 가난한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제지업체들의 담합으로 폐지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기 대표는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업사이클링 모델을 채택해 2016년 러블리페이퍼의 문을 열었다.

러블리페이퍼를 운영하면서 기 대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재활용업체로부터 폐지를 운반할 차량을 지원받기도 했고, 많은 작가들이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많은 자금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회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잉여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사업체를 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금과 인력이 부족했지만, 저희의 아이디어에 공감한 재활용업체와 작가들이 자신의 자원과 재능을 저희와 공유한 덕분에 오늘의 러블리페이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러블리페이퍼 운영도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외활동 커뮤니티 등에



▲‘러블리페이퍼’ 직원들이 폐지로 캔버스를 만드는 모습. 한때 기 대표는 폐지 줍는 노인을 고용해 캔버스 제작 과정에 투입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 러블리페이퍼

직원 모집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적었고, 어렵사리 직원을 채용해도 이들이 중간에 퇴사하기 일쑤였다. 기 대표가 폐지 줍는 노인을 직접 고용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 그도 떠나고 말았다. 기 대표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대안학교 ‘푸른꿈비전스쿨’의 교사직과 러블리페이퍼 대표직을 겸임해왔거든요. 하지만 제 내면에 자리한 확고한 신

념 덕분에 어려워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이밖에도 기 대표는 여러 재활용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박진제(폐공장) 대표와는 ‘폐지넷(폐지 수집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을 결성해 활동 중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윤희승 기자

yoohing@gmail.com

# 100년 전 그들의 외침을 듣다

## 3·1운동, 민족과 민중의 역사적 실체를 보여준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만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여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군 병천면 아우내 장날,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나눠 주며 외친 연설 중 일부다. 전 국민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던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를 따라 100년 전으로 가보자.

### 변화의 바람이 불다

1910년대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대대적인 국가 재편성이 진행됐다. 이 시기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는 국가 재편성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다. 민족자결주의는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식민지·반식민지(형식적으로만 주권을 가진 독립국) 국가들에게 강력한 민족저항운동을 촉발시켰다.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장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인들에게

민족이 주체적인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기훈(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일제는 강압적인 통치만으로 조선인들의 저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3·1운동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 소리칠 준비를 하다

1918년 말, 민족주의자들과 학생들은 독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주로 국외에서 조직을 결성해 움직였고, 국제 사회에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하이에서는 여운형, 김규식 등이 ‘신한청년당’을 결성해 활동했다. 이들은 1918년 11월에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꾸준히 외교활동을 이어갔다.

미국에는 1918년 12월, 안창호 등이 조직한 ‘대한민국민회’가 있었다. 이 단체는 1919년 2월, 향후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독립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일본에서는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가 도쿄의 YMCA회관에서 웅변대회를 가졌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 만세 대장정을 치르다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 중인 조선인 청년들이 모여 도쿄 한복판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퍼졌다. 이후 개별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민족대표 33인, 종교계와 합류해 3월에 펼칠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경성지법검사국문서』에는 1919년 2월 27일, 이종일 제국신문 사장이 경성에서 제작한 독립선언서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각 교단 조직망을 통해 신속히 전국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리고 3월 1일, 이종일이 배포한 문서를 본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에 이 교수는 “민족대표들은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선언식이 자칫 폭력 시위로 변할 것을 걱정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민족대표들은 그날 종로의 한 음식점으로 이동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주도로 평안도·함경도·황해도의 주요 도시에서도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3월 3일에는 고종의 장례식장에서, 3월 5일에는 남대문역 광장에서 만세운동이 열렸다. 고종의 장례식에서 만세운동을 목격한 지방



사람들이 귀향하면서 만세운동은 전국 주요 도시들로 번져나갔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초반의 3·1운동은 비폭력 투쟁이었다. 그러나 만세운동이 농촌까지 확산되자, 일제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제한선교사보고』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집회를 진행했으나, 일제 헌병 경찰들이 물을 쏘아대거나 갈고리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한다. 시위대 안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자 군중들은 분노했고, 일제의 탄압에 점차 무력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은 그 해 12월까지 이어졌고, 이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일제가

통치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군대나 헌병 경찰이 무력을 행사하는 ‘무단통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통제했으나, 3·1운동 이후에는 ‘문화통치’로 전환했다. 겉으로는 조선인들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교묘하게 감시하고 탄압하는 통치방식이었다.

이 교수는 “3·1운동은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라며 “민족이나 민중을 ‘관념’이 아닌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다. 3·1운동은 민족과 민중의 역사적 실체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3·1운동 진행과정



# 극지방 찬 기운을 내보내고 가두는 ‘극 제트기류’

## 약화되면 겨울에는 혹한, 여름에는 폭염 찾아와

지난 1월 서울에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눈이 내리지 않았다. 21일 한때 눈발이 날렸지만 길바닥에 쌓이지 못한 채 녹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서울 적설량은 0mm로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1월 전국 평균기온은 0.3℃로 평년 기온(-1.0℃)을 웃돌았다. 반면, 미국 시카고에서는 지난 1월 30일 기온이 약 -25℃(평년 기온 -6℃)로 측정되는 등 기록적인 한파를 겪었다.

올 겨울 한반도와 미국은 왜 정반대의 기후를 보인 것일까? 이에 대해 최정희(기상청 기후예측과) 주무관은 “최근 북극 주변에 형성된 극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미국 쪽으로 남하해 한파가 몰아쳤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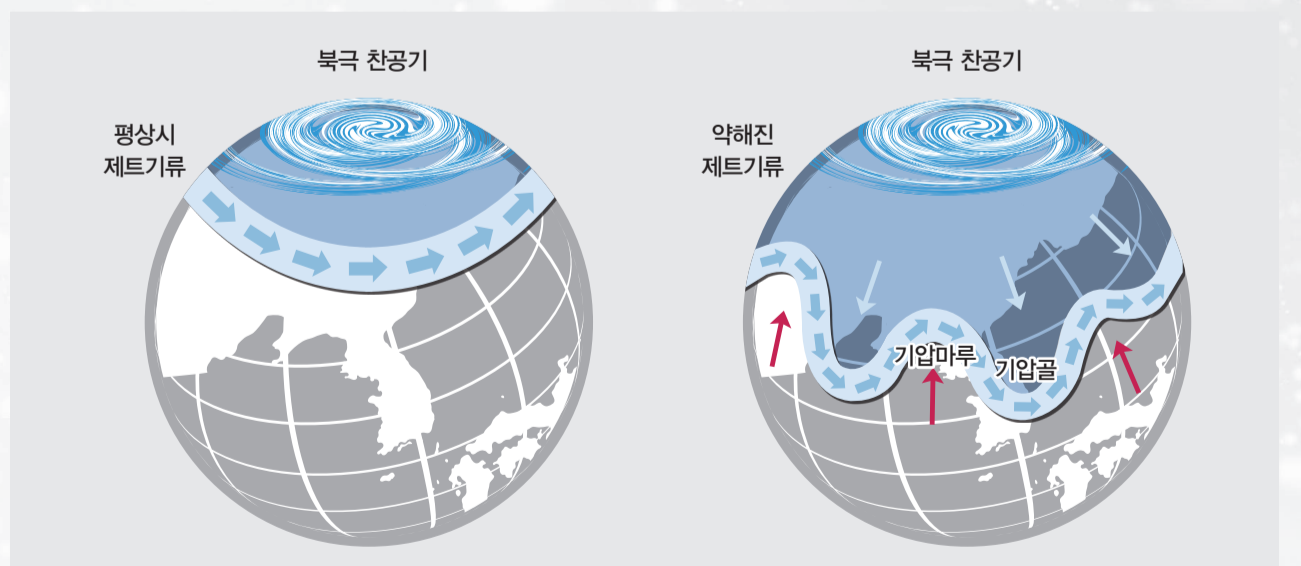
최 주무관이 언급한 극 제트기류는 극지방에서 형성되는 제트기류를 뜻한다. 제트기류는 지상 9,000~10,000m 상공에서 형성되는 대기의 흐름을 말하는데, 제트기류 내부에서는 시속 100~250km(최대 시속 500km)의 바람이 휘몰아친다. 제트기류는 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온도 차가 클 때 강하게 형성된다.

제트기류 중에서도 북극 주변에서 형성되는 극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를 아래로 내려보내거나 일시적으로 가두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에는 찬 공기를 적절히 내보내 북반구의 기후를 비교적 시원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찬 공기를 극지방에 가두 위도가 낮은 지역이 덜 춥게 도와준다. 극 제트기류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찬 기운이 유입되고, 기압마루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는 찬 기운이 유입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극 제트기류가 약화돼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열과 수증기가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극해 주변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돼 북극 주변의 기온이 상승했다. 온도 차가 커져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데 북극과 저위도 지역의 대기 온도 차이가 커져서 극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이다.

올 겨울 미국이 유난히 추웠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극 제트기류가 약해져 찬 공기가 남하해 미국이 기압골 영역에 들어



▲(좌) 극 제트기류가 강할 때 모습 (우) 극 제트기류가 약할 때 모습. 극 제트기류가 강하면 찬 공기가 극지방에 갇혀 비교적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지만, 극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찬 공기가 남하해 날씨가 추워진다.

가게 됐고, 북극의 찬 기운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어 기록적인 한파를 겪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반도가 기압마루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극 제트기류가 찬 공기를 막아주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었다.

한편, 극 제트기류의 약화는 겨울 기온뿐만 아니라 여름 기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여름 한반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린 이유도 극 제트기류가 약화되어서다. 여름에 북극의 찬 공기를 내려보내야 할 극 제트기류의 힘이 약해지면서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계속 머물렀고,

서울 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지속된 것이다.

화학 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의 화살이 이상 기후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온 셈이다.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 삼 학 송 ·

# 사흘마다 작심삼일

새해가 되면 으레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신년 계획 세우기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다이어리나 스마트폰 메모 앱에 빼곡히 적힌 버킷리스트를 촬영하거나 캡처해 올리면서 마음을 다잡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금연하기, 다이어트하기, 책 읽기, 여행하기, 일기쓰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계획이 늘 내 생각대로 실행되지 않는 법이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헬스장 이용권을 등록해 두고는 초반 며칠 열심히 다니다가 점점 발길을 끊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자, 윤리 선생님이었던 분이 수업 중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작심삼일을 사흘마다 하세요." 무슨 배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사흘마다 작심삼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사흘마다 작심삼일'의 요지는 간단하다. 말 그대로 작심삼일을 반복하라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첫 3일 동안 그 계획을 실행해본다. 만약 계획이 잘 실행되지 못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반성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수정해 다시 3일 동안 새로이 도전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3일 동안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을 느꼈다면, 그 다음 3일

동안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정해 실행하면 된다는 말이다. 즉, 계획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자신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 가면 된다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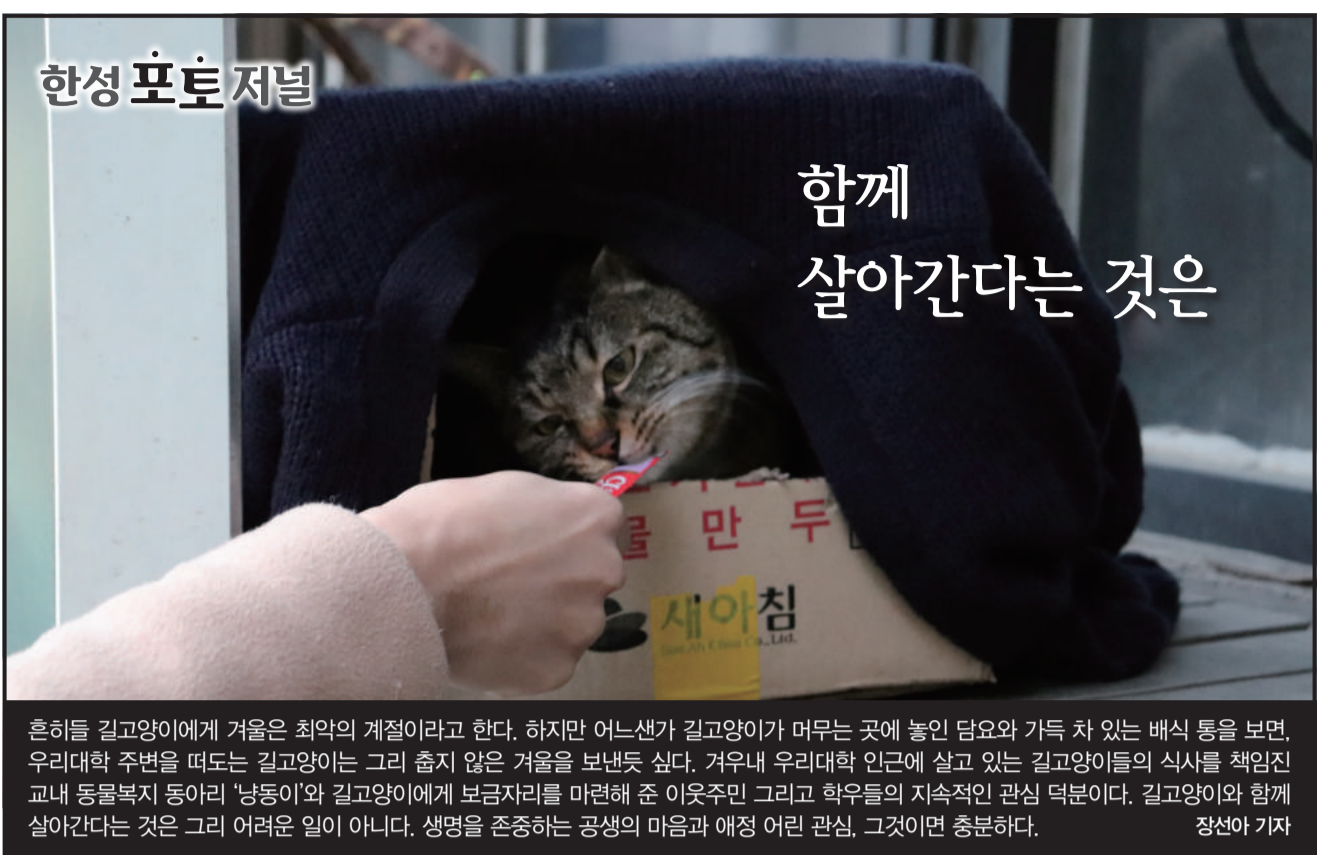
그런 식으로 작심삼일을 122번 반복하면 1년이 가득 채워진다. 이것은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두는 방법보다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일본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그의 저서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을 부정해선 안 된다. 시작해보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날지 더욱 지속하게 될지조차 모르는 법이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 '무엇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자신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해보았지만 잘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깨달은 것만 해도 작심삼일의 의미가 있다.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수단의 효율 따위에 얽매이면 안 된다. 처음부터 100%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30% 정도의 수단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느 사이엔가 수단 자체가 저절로 성장해 갈 것이다."

자고로 3월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다. 1-2월을 이미 날려버렸다고 아쉬워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 사흘마다 작심삼일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추천해본다.

강예림 편집국장



흔히들 길고양이에게 겨울은 최악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샌가 길고양이가 머무는 곳에 놓인 담요와 가득 차 있는 배식 통을 보면, 우리대학 주변을 떠도는 길고양이는 그리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을 것이다. 겨우내 우리대학 인근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식사를 책임진 교내 동물복지 동아리 '냥둥이'와 길고양이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이웃주민 그리고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다.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공생의 마음과 애정 어린 관심, 그것이면 충분하다. 장선아 기자

## 기자수첩

지난 2월 1일 JTBC에서 종영한 드라마 <SKY캐슬>의 등장인물 중 나는 '강준상'이라는 인물에 애착이 갔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준상은 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대학 병원 차기 원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실력 있는 의사다. 사실 강준상은 그가 원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의사가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바람 때문이었고, 자신의 딸을 의사로 키워내려는 것도 '3대 의사 가문'이라는 어머니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였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고려대학교를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졸업한 아버지는 나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나를 소위 '지역에서 상위권 대학에 잘 보내는 고등학교'로 진학시켰다. 고3 때 내가 아버지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자,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나는 우리학교 행정학과에 지원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며 전공 수업과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었고, 결국 아버지의 바람과 관계 없이 나의 의지로 데이터 분석가라는 진로를 정하게 됐다.

비슷한 경험을 해서일까. 강준상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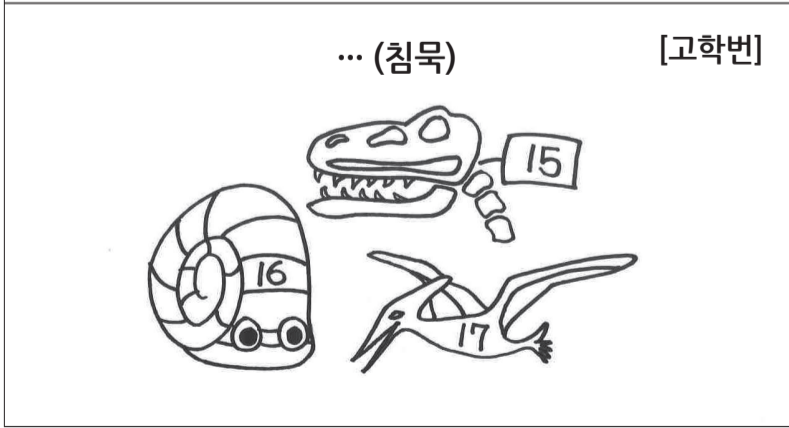
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보는 내내 응원하게 됐다. 나도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에도 예전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트랙제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고, 여러 대외활동과 외부 강연 등에 참여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윤희송 기자

## #낙산세컷\_한성in\_세대\_교체

정수민 기자



### < 대학가 취업 맞춤형 교육, 당신의 생각은? >

**<편집자주>**  
최근 대학가에서는 기초학문 대신 응용학문을 권장하며 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두고 '사회적 수요 반영'이라는 의견과 '고등교육 기능의 변질'이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대학의 취업 맞춤형 교육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현일선(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  
담당 과목에 한해 의견을 밝히자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일정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익·토플·오픽 등 각종 영어시험 점수를 취업 요건에 포함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의 취업, 나아가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IT 3) 학생**  
취업부문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 분야도 사회와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 맞춤형 교육으로 대표되는 대학가의 교육 커리큘럼도 결국은 사회가 필요 하는 제반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은(인문 2) 학생**  
기초학문을 닦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학문을 키우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응용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이 우선 충실하게 학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영진(인문 2) 학생**  
취업 맞춤형 교육이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겠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분야의 기술을 개인이 전수받는 것일 뿐입니다. 대학이 취업 맞춤형 교육에만 집중한다면 본연의 목적인 학문 탐구를 등한시하고 해당 분야 자체의 발전을 늦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강재준(제품디자인 3) 학생**  
대학이 학생들에게 안겨줘야 하는 것은 효과적인 취업 답안이 아니라, 본인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어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아니면 과연 어디서 그런 질문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까? 부디 대학들이 쉬운 길만을 택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 한성대신문사 46기 수습기자 모-집

어서와. 학보사는 처음이지?



빛나는 대학언론인 되는 법! RGRG?



입벌려 원고료 들어간다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 지원자격

- 본교 학부생일 것
- 학적 상태가 '재학'일 것
- 2학년 이하일 것
- 연속 4학기 이상 무휴학 활동 가능할 것 (군입영 휴학 불가능)
-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회 소속이 아닐 것
- 영자신문사, 방송국과 이중 지원이 아닐 것
- 4월 1일부터 주 4일 이상 근무 가능할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학번 · 전공 · 성별 제한 없음

## 모집기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선발인원

약 3 ~ 5명

## 선발절차

1차

서류(자기소개서) 심사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조율 3월 23일(토)

2차

면접(역량·인성·시사) 평가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3월 30일(토)

※ 1차 및 최종 불합격자 통보 예정

## 활동기간

2019년 4월 ~ 2020년 12월

※ 편집국장 진급 시 ~ 2021년 6월

## 지원방법

- ①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한성 > 한성공지 > 공지 사항에서 '한성대신문사' 검색 후 19번 게시글 첨부 파일(한성대신문사 제46기 수습기자 지원 자기소개서)을 내려받아 작성
- ② 작성한 서류를 한성대신문사 이메일 (hansungnews@gmail.com)로 첨부하여 제출

## 활동혜택

- 비교과 포인트 400pt 이상 지급
- 매호 기사 분량별 원고료 지급
- 정기자부터 매월 직급별 활동비(장학금) 지급
- 명함 및 프레스증 발급
- 사물함 · 복합기 등 무료 사용
- 외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수여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및 금반지 증정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강예림 편집국장 010-8724-0441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